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 서거 77주기 추모 헌사

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정인보 등의 여러 기록에 고하의 업적을 충무공의 업적에 비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는 비록 나쁜 정부라도 있으면서 항전했지만 고하는 정부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념을 심어주면서 이끌어왔고 동아일보 사장으로 있으면서 식민지도 아닌 합병국가에서 꾸준히 청년들을 교육, 계몽하고 도산의 가르침인 ‘아는 것이 힘’임을 강조 실천해온 것이 충무공 이후의 위업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장들은 선조, 조선의 장군들, 명나라 도독 진린, 이 충무공에게 까지 온갖 뇌물을 보내며 철수 퇴로를 내줄 것을 요청하자 왕권수호가 다급한 선조는 통로를 내줄 것을 즉각 명령했고 모든 장수들이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충무공만이 이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항전했습니다. 조명연합군 총사령관인 명도독 진린이 칼까지 빼어 들며 저지했으나 충무공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무공은 장군의 별이 희미해지고 고요한 바다에서 대장기가 부러지는 등 9가지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으나 이를 모두 무시하고 하늘에 ‘차수약제 사즉무감’을 기원한 후 소서행장의 노량해협 퇴로를 가로막아 섬멸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때는 정유재란 시기인데 장군은 이번에 왜군을 그냥 보내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오고 그러면 임금은 도망가고 백성들만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통격을 가해야 재침하지 못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그 후 3백년 동안 한일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왜군 조총은 사거리나 정확도에서 크게 미흡했습니다. 함대사령관이 조총에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군 섬멸 작전이 종반에 이르자 장군은 면주선등, 갑옷을 벗고 최전선으로 나아가 직접 복을 울리며 독전하다가 유탄에 맞아 별세하셨습니다. 장군은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실상 자살이었습니다.

니다.

영국의 넬슨보다 위대하다는 등 충무공에 대한 찬사는 많습니다. 그중에도 일본의 문호 시바 료타로의 표현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순신은 명장일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문무 관료들 중 거의 유일할 정도로 청렴결백한 인물이었으며 통솔 재능이나 전술 전략이나 충성심, 용기와 결단, 철저한 기록 정신, 유비무환의 자세, 지극한 효성에 있어서까지 이 세상에 실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거의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일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독립이라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제 치하에서 감옥을 드나들면서 젊은 청년들을 꾸준히 가르치고 계몽하는데 심혈을 쏟고 한글 보급과 함께 단군, 세종대왕, 충무공의 얼을 이어가려는 처절한 독립에의 집념입니다.

중앙학교 교장인 고하 송진우 선생은 동경 2·8 선언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거의 매일밤마다 교주 인촌 김성수, 교감 기당 현상윤과 국내외 항일봉기 실행 문제를 숙의하고 또 토의했습니다. 결국 고하의 주장으로 국내 항거를 즉각 실행하기로 하고 최남선에게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게 한 뒤 천도교 최린 등과 3·1운동 대표 구성 등 거사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빠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행히도 오산학교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 등이 참여해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각 종단과 학생, 기타 국내 세력 간의 제휴를 이룩해내 3·1운동 민족항쟁의 거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선생은 뒷일을 수습하기 위해 33인이 아니라 48인에 명단을 올렸지만 혹독한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후 미군 진주가 늦어지면서 여운영 등이 공산당과 합작해 서울에서 인민공화국 선포 등의 인민공화국 정부 조직에 나서 실행

하려하자 고하는 이승만, 김구의 귀국을 기다려 권동진, 김성수, 허헌 등을 내세워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확대 개편해 고하가 직접 국민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한민당을 조직해 수석총무로 추대되어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다가 1945년 12월 30일 저격당해 별세하셨습니다. 고하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 건국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고도 루벤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다리 뺀고 누울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 찌그러진 변강통 한개. 온갖 치욕과 고문, 폭행을 당하면서 27년간 옥살이 끝에 71세에 풀려났습니다.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 철폐에 앞장서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온갖 박해와 고통을 주었던 정적들을 모두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남아공 제2의 건국을 이룩해냈습니다. 그가 별세했을 때 세계 언론들은 만델라는 인류, 인간, 사람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거인으로 평가하고 존경했습니다.

만델라뿐만 아니라 노예해방의 링컨, 인종차별을 무너뜨린 킹 목사, 서구열강으로부터 핍박받아온 아시아 지역의 간디, 고하가 민족, 민주, 민생주의를 이어온 손문, 나아가 호치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인류, 인간, 사람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위인들이입니다.

다시 고하 송진우 선생 일생을 보면 청렴, 통솔력, 전략, 용기와 결단, 조국에 대한 충성심, 기록 정신, 청년계몽에 있어서까지 이 세상에 실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거의 이상적인 인물로 그 역시 인류, 인간, 사람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위인이었다고 대한민국의 한 역사 기자로서 기록합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송진우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봉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동우회 명예회장 조강환 봉독